

EBS, 에어리얼 MAM 도입

제작부터 송출까지 '디지털 방송 완성'



“EBS는 제머나이소프트의 에어리얼을 도입,
최적화된 MAM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방송 시대의 모범이 될 것이다.”

■ 고객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업종

방송

■ 도입 배경

- ✓ 파일 기반 제작 환경으로 전환 필요성
- ✓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 필요성 대두

■ 도입 효과

- ✓ 워크플로우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효율성 증대
- ✓ 제작, 송출, 아카이빙, 콘텐츠 공급 프로세스의 유기적인 통합
- ✓ 디지털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매체 경쟁력 확보

우리나라 방송 교육의 선두주자이며 이러닝(e-Learning)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www.ebs.co.kr)는 제머나이소프트의 에어리얼(Ariel) MAM(Media Asset Management) 솔루션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아카이빙, 송출을 아우르는 IT 기반 제작 시스템을 완성했다.

또한 2017년 8월에는 일산 디지털통합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지상파 TV 3채널(1TV, 2TV, FM라디오)과 위성 4채널(플러스1, 플러스2, EBSe, EBS Kids)의 송출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세계 초일류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일 기반 제작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MAM 시스템 필요

2010년, EBS는 선형(linear)과 비선형(Non-Linear)이 혼합된 방송 제작 환경과 Tape 기반의 콘텐츠 관리 등 Tape과 File이 혼합된 제작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빈번한 Tape 인코딩과 Tape-Out 으로 제작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편했다. 또한 Tape 기반의 콘텐츠 관리로 인해 Tape 자료의 대출/반납 업무가 많았다.

이러한 제작시스템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제작환경 구성을 위해 MAM 시스템을 도입하여, 파일기반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제머나이 에어리얼 기반의 MAM 시스템 도입

EBS는 MAM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반 제작 시스템(Network-based Production System : NPS)의 구축,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Digital Archiving System)의 증설, 기존 종합정보시스템과 파일 기반 송출 시스템, 오디오 파일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와 NPS 구축 사업에서의 메타데이터 구현은 확장 가능한 유연한 메타데이터 구조의 확보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당시 국내 MAM 개발 업체 중에서 동적 메타데이터를 구현한 업체는 제머나이소프트가 유일했다. 또한 인제스트, 리래핑, 트랜스코더 등 미디어 자산 관리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EBS는 제머나이소프트의 '에어리얼(Ariel)' MAM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리얼 MAM은 제머나이소프트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웹 기반의 미디어 관리 솔루션으로, 미디어 자산의 수집, 처리, 보관, 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개방형 표준 아키텍처를 채택해 다양한 워크플로우와 디지털 자산의 메타데이터 관리, 검색, 탐색, 분배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확장성·효율성 고려한 파일 기반 방송 시스템 구축

EBS는 3단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0년 시작된 1단계에서는 제작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 워크플로우를 구현했으며, 2012년에 진행된 2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구축한



[디지털 아카이브 E-DAS]



[NPS - 제작 시스템]



[송출 관리 시스템]

시스템을 확대하고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으며, 최종 3단계는 제작·아카이빙·송출을 아우르는 파일 기반 방송 시스템을 완성한 단계로 2015년에 완료됐다.

각 단계별로 업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연속성 있는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이후 단계의 확장과 고도화를 고려해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설계를 진행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의 확장과 유지보수의 효율성도 고려했다.

이와 더불어 EBS는 메타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수행했다. 콘텐츠 통합 관리를 위해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구축은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제작 환경 기반 마련

이 프로젝트를 통해 EBS는 제작 워크플로우를 개선하여 제작, 송출, 아카이빙 등 방송 제작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 MAM 시스템과 종합정보시스템, 파일 기반 송출 시스템, 오디오 파일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콘텐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은 향후 EBS의 매체 경쟁력과 기술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주)제머나이소프트는 동영상, 이미지, 문서 등 디지털 미디어 자산의 생성, 보관, 수정, 배포, 폐기에 이르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 개발한 미디어 자산 관리(Media Asset Management) 솔루션, 보도 정보 솔루션 등 미디어에 대한 기술력은 업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국, 케이블방송 사업자,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과 보도,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주)제머나이소프트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더욱 유연하고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